

민주 '고발사주' 의혹·'장모 문건' 맹공

검찰 조직 하나회 같은 실체 확인 파도 파도 공작, 파도 파도 괴담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고발사주' 의혹과 더불어 대검의 '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두고 비난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대검은 총장의 범죄 혐의를 비호하려 집사 변호사나 해결사처럼 움직였다"며 "검찰권의 완전한 사유화, 검찰 조직의 하나회 같은 총격적 실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직접적인 관련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며 "윤석열 감독, 검찰과 국민의힘 공동 주연인 국기문란 사건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 정도면 억지로 끼는 '억까'가 아니고 스스로 끼는 '스까' 후보"라며 "대검을 불법 정치공작소와 가족 측근 무리 변론 사무소

로 만든 윤 전 총장을 감싸기 위해 국민의힘은 오늘도 당력을 총동원 중"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파도 파도 공작, 파도 파도 괴담 뿐"이라며 "검찰총장 재직 시절 장모를 지키려 대검청을 흥신소, 사설 심부름센터로 전락시켰다는 검찰 공작, 검찰 농단의 일각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장모 사건 대응 문건과 고발사주는 사실상 하나의 사건으로, 핵심은 지시자를 밝히는 것"이라며 "공수처와 경찰, 검찰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전날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 자당 김용 의원에게 보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면서 오히려 김 의원에 표창장을 줘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집중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국기문란 범죄

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을 자백한 셈으로, 기본적 법 의식조차 없는 소시오패스 같은 발언 앞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유출이 문제라고 했던 것과 똑같다"며 "쿠데타가 무슨 문제냐, 구국의 결단이다"라고 했던 군사 반란 주범들과 똑같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황당한 망언으로, 의혹을 인정할 발언 자체는 환영하나, 문제점을 인식하는 능력은 제로에 가깝다"며 "혹시 윤 전 총장과 낯을 마시고 한 발언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국정원 배후설 비판도 이어갔다. 박원호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제보사주 프레임은 명백한 몰타기로, 본질을 흐도하는 정치적 행위"라며 "검당 유착'이 본질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무주공산 '정치 1번지' 종료, 거물 빅매치?

민주 임종석·추미애 등 거론 野 황교안·나경원·이준석 등판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15일 의원직 사퇴로 진행될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 1번지'로 불릴 만큼 정치적인 상징성이 큰 데다가 내년 3월 9일 대선 때 같이 치러지면 여야 거물들이 대선 후보와 사실상 러닝메이트를 이루면서 대결을 벌일 것이라 관측에서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 이름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개인적 인지도에 더해 지난해 4월 총선 때 종로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불출마를 선언한 이력 때문이다. 다만 임 이사장은 현재 경문협 관련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이유로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는 현재 대선 경선을 뛰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 광진구에 직전 지역구였던 데다가 경선에서 안정적인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권리당원 등을 비롯한 개혁

세력의 지지도도 확인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에서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거론된다. 이 전 대표와 맞붙어서 패한 만큼, 설욕을 베풀 가능성이 있다.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현역 당협위원장인 정문헌 전 의원도 잠재적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준석 대표의 구원등판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대표로서 대선 승리를 이끌고 종로 선거에서도 승리한다면 순식간에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까지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호중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서초갑 역시 무주공산이 된 상태다. 서초가 보수정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만큼 이곳에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주로 거론된다. 올해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출마해 대중 인지도를 쌓은 조은희 현 서초구정장과 서초갑 의원이었던 이해준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민주당에서는 작년 총선에서 윤 의원에 고배를 마신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재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강남구 을에서 낙선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뛰어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1차 컷오프 8명 통과

16일부터 2차 예비경선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경선레이스의 1차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 또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2차 예비경선(컷오프) 레이스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예비경선 후보를 11명에서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 결과를 밝혔다. 안상수·원희룡·유승민·윤석열·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기나다 순) 후보가 문턱을 넘었다. 반면, 박진·장성민·장기표 후보는 탈락했다.

이번 컷오프는 국민 여론조사 80%와 책임당원 여론조사 20% 방식으로 진행됐다. 순위와 구체적인 득표율은 비공개에 부쳐졌다.

정홍원 선관위위원장은 "1차 컷오프는 13-14일 책임당원 및 일반국민 대상으로 각각 2000명씩 표본 조사를 시행해 결정했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경선의 여론조사 지지율 및 순위는 공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8명의 후보는 대의를 위해 소의를 버리는 자세로 임해달라"며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경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2차 예비경선은 토론 위주로 진행된다. 8명의 주자는 오는 16일 TV토론을 시작으로 총 6차례 토론회에서 맞붙게 된다. 이후 국민 여론조사



15일 국민의힘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후보.(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기나다 순). 국민의힘은 다음달 8일 2차 예비경선에서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한 뒤 11월5일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 /연합뉴스

70%, 당원투표 30% 방식으로, 다음 달 8일 4명으로 압축한다. 최종 후보는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국민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 방식으로 선출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규제 강도, 미국보다 아주 낮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정부·여당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 "이 법은 미국의 플랫폼 법보다 (규제) 강도가 아주 낮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 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실제로는 플랫폼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

신의 중요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180만 중소기업체를 보호함으로써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가 동시에 혁신하고,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성남 대장동 개발 수사 100% 동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저한테 사퇴해라, 수사해라" 말씀하시는데 수사하는 것에 100%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제가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예의로 조금만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를 맺었다"며 "또 (수사를) 요구하면 하시는 거야 저는 100% 찬성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은 워낙 이권이 많고 수익이 높은 사업으로, 당초 LH가 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신모 국회의원에서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압력 넣었고, 결국 LH가 포기해 민간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제가 예상을 뒤엎고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공공개발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다수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극렬하게 반

대했지만 사업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조건으로 성남시에 최소한 5000억원의 순이익을 보장하도록 했다"며 "계약조건은 명확하다.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관여하지 않는다. 모든 비용, 위험, 손해는 민간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부담한다. 성남시는 오로지 인허가권만 행사한다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 중에 땅값이 많이 올라서 추가로 920억 원을 더 부담시킨 것으로, 반대로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라며 "그들이 모든 사업을 하고, 우리는 위험 부담 없이 가장 안전하게 이익만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손해나 이익을 보는지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상식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본인들의 선배 국회의원 한 일을 잘 모르고 그러는 모양인데 한 번 더 알아보시라"고 했다. /연합뉴스

심상정 "新재벌' 네이버·카카오 공화국 막겠다"

대선 공약 3호 발표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15일 "노동을 착취하는 신(新)재벌인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성 공화국이 다시 네이버 공화국, 카카오 공화국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대선 3호 공약인 '플랫폼 경제 민주화'를 발표했다.

심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독식을 막을 5대 세부 개혁안으로 ▲ '플랫폼 독점방지법' 입법 ▲ 인터넷

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원칙 적용 ▲ 플랫폼 기업에 우선 주4일제 도입 권고 ▲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신설 ▲ 개인정보보호기준 상향 등을 공약했다.

그는 "플랫폼 산업은 장밋빛 미래 대신 디스토피아의 미래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플랫폼을 넘어 문어발 확장으로 독과점을 추구하고, 골목시장을 혁신적으로 잠식하고, 알고리즘 앞세워 노동을 착취하는 신재벌이 되어가고 있다"며 "플랫폼 독점마저 방지하면 우리 공동체는 붕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상가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 (매매 분양)
<p>1) 40평(전용) 2억5천(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4억5천(용3억)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댐 (호) 2분,</p> <p>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사무실 리모델링, 배, 유층,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010-6670-98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